

한전 도서관 ‘에너지’ 문화공간 자리매김

에너지·전력역사 희귀서 등 소장 자료 10만751권
첨단 스마트 기기 도입
문화강좌·공연·전시 등 다채 방문객·주민 가입자 증가

잘 꾸며놓은 대형 서점과 비슷한 분위기가 풍겼다. 그저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었다. 책을 보다 쉬고 싶은 이들을 위한 쉼터도 있었고, 공부나 업무를 하기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이 구성돼 있어 마치 분위기 좋은 카페 같았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 본사 1층에 마련된 ‘한전 스마트 도서관 에너지(지)’가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혼자 와도, 지인과 함께 와도 책을 읽거나 자유롭게 여가를 보낼 수 있어 직원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노트북을 비롯한 태블릿PC 등 사용자를 위한 전기 콘센트가 마련돼 있어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열리고 있다.

한전 스마트 도서관은 지난 1986년 12월 서울 삼성동에서 사내 자료실로 개관해 한전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2014년 12월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해 운영되고 있다. 이전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전문도서관으로 발전하다가, 이전 이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개방형 도서관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첨단 스마트 기기와 장비도 도입, 최신성을 확보했다. 이용자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 1층에 조성된 ‘한전 스마트 도서관 에너지(지)’. 도서관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 제공>

우선 내부 공간 규모를 비롯해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방대하다. 도서관 공간만 1047.93㎡(317평)로, 사서도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도 10만751권에 달하는 등 일반 대학 중앙도서관 못지 않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단행본 5만28권, 특수간행물 2만8639권, 정기간행물 2000권, 제본잡지 6000권, e북과 DVD 등 비도서 1만4084권 등으로 철학과 종교, 사회과학, 자연과학, 취미미술, 지리역사 등 단행본 주제와 장르도 다양하다.

특히, 한전의 특성에 맞춰 에너지와 전력역사에 대한 희귀도서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전력과 화학, 원자력 등 단행본을 비롯, 전력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등 에너지관련 자료만 2만여권에 달한다. 또 한국전기백년사와 한국전기사업변천사 등 전력사 희귀도서 16종도 전시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때문에 한전 스마트 도서관을 찾는 지역민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450여명으로 도서 대출권수도 일 평균 250여권이다. 지역주민 가입자도 최근 3728명으로, 도서관을 꾸준히 찾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매년 1~3기로 구성해 인문학과 글쓰기, 캘리그래피 등 약 1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또 연말이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작은음악회와 예술작품 전시회, 체험코너 등도 개최해 지역사회 문화생활과 여가를 지원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 스마트 도서관 에너지가 한전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만남과 소통, 즐거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열린 장소로 운영할 것”이라며 “책과 문화의 가치를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전KDN이 개최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빛가람 힐링 콘서트’에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강연을 하고 있다. <한전KDN 제공>

지역사회와 함께 빛가람 힐링콘서트

한전KDN 문화생활 강연…주민 등 450명 참석

한전KDN(사장 박성철)은 최근 본사 빛가람홀에서 강연 프로그램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빛가람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문화생활과 주제별 강연을 통한 창의력 배양을 위해 2회째 열렸으며, 임직원과 가족, 지역주민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강연자로 나서 ‘음식패락은 어떻게 탄생했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에너지ICT 전문 공공기관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가치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명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지속가능한 농식품 발전 경영 모색

aT 전·현직 임원 경영간담회 개최…혁신토론회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지난 26일 전임 임원을 초청해 ‘지속가능 농식품 발전을 위한 전·현직 임원 경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aT 전임 CEO와 임원들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로, 과거 aT를 거쳐간 CEO, 임원 및 현직 임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창립 51주년을 맞은 aT의 역할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aT는 경영간담회 외에도 농업인 간담회, 혁신토론회,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행사를 열고 있다.

이병호 사장은 “국산농산물 자립기반 구축, 농어업인의 소득제고, 일자리 확대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창출을 통한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해 내외부 의견을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aT 전·현직 임원 경영간담회에서 이병호(가운데) 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aT 제공>

미디어 환경변화 따른 법제도 대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내일 서울서 세미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서석진)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미디어 법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부상에 따른 미디어 환경변화와 그에 대비하는 법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미디어 법제의 대응과 진화 방향’을,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가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미디어 법제의 대응과 진화방향’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를 사회자로 강재원 동국대 교수, 안정민 한림대 교수, 박성철 박사(KCA) 등 법학·경영학·미디어학·컴퓨터공학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진다.

KCA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미디어·콘텐츠의 경쟁력 확보와 혁신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 신기술 부상에 대비한 제도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CA 홈페이지(www.kca.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